

다전공·융합전공 불편사항 호소 계속 제도 개선 필요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학문간 연계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 지식·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마련한 다전공·융합전공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흡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관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신문은 다전공, 융합전공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점검해봤다.

수강 신청 계획부터 정보 장벽으로 어려움

학생들의 고민은 수강 신청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전공 선호도가 높은 학과일수록 수강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전공 학생과 선수강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이 물리기 때문이다. 정작 본전공생이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학교는 다전공 학생의 T/O를 따로 두고, 수강 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대책을 모색했지만, 수강 신청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월, 디지털콘텐츠학과(디콘) 학생들은 전공과목 수강 신청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수강신청 고충 겪는 디지털콘텐츠학과/대학주보 제1682호(2021.03.14.)) 본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다전공 학생이 전공 수강을 희망하고, 타 학과에서 디콘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도 해 그만큼 전공 수업의 정원이 부족한 탓이다.

본전공생과의 배경지식 차이 성적 취득에 어려움

또 다전공생의 경우, 본전공생보다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로 인해 다전공 강의 수강을 결정하는 데도 혼란을 겪고 있다. 다전공으로 미디어학과를 선택한 A 씨는 “다전공 시간표를 계획할 때 어떤 강의를 먼저 이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난감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미디어학과를 복수전공 중인 전윤서(국어국문학 2020) 씨는 “해당 전공이 진로에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어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해당 전공 교수님께 연락할 방도나 정보를 알 길이 없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학점 취득에도 어려움을 줬다. 우리학교는 현재 타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성적 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본전공생들에 비해 배경지식이 부족할 밖에 없는 타전공생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억제할 우려가 있다. 전 씨는 “일부 강의는 족보 여부가 성적에 큰 변수가 될 만큼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몇몇 대학은 타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해 별도 성적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자신의 소속이 아닌 타 학부 및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에 대해 S/U(충족 Satisfactory, 미흡 Unsatisfactory) 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S/U 평가 방식이 채택된 교과목의 경우 성적이 C0 이상일시 S로 등재돼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대는 지난 2018학년도부터 ‘타 학과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 방법 선택제’를 도입해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S/U 평가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완화된 학점 기준은 다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타전공에 관한 경험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점에 얽매이지 않고 강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유사 전공과목 학점 인정 상이 중복 수강 초래

제도상 허점도 있다. 유사 전공과목에 대해 학과별로 달리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단과대에서 수강한 수업에 대한 전공과목 인정이 해당 학과의 학칙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같은 과목임에도 중복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캠퍼스(서울캠) 이과대학(이과대)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응용과학대학(응과대)은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전공기초과목에서 물리학과 미적분학을 배우는 것도 동일하다. 때문에 두 단과대학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이라면 이미 수강한 과목을 다시 수



다전공·융합전공제도가 학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사진=대학주보DB)

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학과별로 학칙이 상이해 중복수강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제캠 응과대 우주과학과의 경우, 서울캠 이과대 물리학과에 개설된 일반물리학 수업이나 미적분학 수업을 전공기초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과대 물리학과와 응과대 전공기초과목 대부분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즉 물리학과와 우주과학과를 복수로 전공하는 학생은 본전공이 물리학과인지, 우주과학과인지에 따라 중복수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물리학과에서 우주과학과를 복수로 전공하고 있는 허준현(물리학 2017)씨는 현재 우주과학과 전공기초 12학점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물리학과에서 수강한 ▲물리학및실험1 ▲물리학및실험2 ▲미분적분학및연습1 ▲미분적분학및연습2 과목이 우주과학과 전공기초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 씨는 “학칙 개정이 쉬운 일도 아니고, 다전공 학생으로서 학칙 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주저됐다”며 “차라리 학점 인정을 포기하고 과목을 다시 수강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주과학과에서 물리학과를 복수로 전공하고 지난 2월 졸업한 정현택(우주과학 2016) 씨도 중복수강 문제로 초과 학기 위기에 처했던 경험 있다. 물리학과는 우주과학과

의 전공기초과목 대부분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만, 예외 과목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 씨는 “두 학과의 특성상 ‘물리학’과 ‘실험’이라는 단어가 과목명으로 빈번히 등장해, 학점 호환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씨는 학교 측에 양 캠퍼스 모두 동일한 이론과 실험을 다루므로 중복수강을 하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혀 중복수강 면제를 판정 받았다.

이처럼 학과마다 다른 학점 인정 문제는 복수전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학과별로 교육과정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교육과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은 “다전공과목을 인정하는 것은 학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인정을 원하는 단과대학은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며 “차후 교육과정 정기 개편 시 다전공 과정에서의 학점 인정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 연계 제도 속 수업 정원 부족

이에 융합전공제도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해진다. 융합전공은 모집 단위에는 설치돼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해 편성된 새로운 전공을 말한다. 4차 산

업혁명에 대응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 지식 및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문과 학문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교과과정이다. 융합 전공을 대상으로 일반 학생들도 얼마든지 다전공 이수가 가능하며, 융합 전공에 참여하는 학과의 소속 학생만 본전공 진입이 가능하다.

앞서 수강신청 문제가 대두됐던 디콘의 경우, ‘아트&테크놀로지 융합전공’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융합전공생을 포함하면 디콘 전공 수강 희망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아트&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의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 김혜경(디지털콘텐츠학) 교수는 디콘 전공 정원 문제에 대해 “수강 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분반과 관련돼 있고, 분반은 곧 예산과 직결되기에 학과 차원에서 자체적인 해결은 힘들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서울대는 우리학교와 비슷한 문제로 논의가 시작돼 관련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예산과 교직원 부족 등의 문제로 학교 규정에 명시된 최대 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원만을 복수전공 정원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자 서울대 측은 각 학부 및 학과 예산과 교수 T/O를 다전공생을 포함한 실제 등록 정원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했다.